

예수·마리아·요셉의
聖家庭 축일

기도서 P. 233 C해

제1독서(집 회3, 3-7, 14-17)
제2독서(골로 3, 12-21)
복음(루가 2, 41-52)

숨 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1980년도 전주교구 사목교서

내적 쇄신의 해

천주교 전주교구장 **金 在 德** 주교

친애하는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밝은 지혜로 민족의 어려운 시련을 극복했고, 예언자적인 용기로 교회의 무거운 역경을 감수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에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한 해도 이 땅과 여러분 모두를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내년에 맞이할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해로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교구의 일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각자의 사명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성은 연례적인 반성이 아니라 교구의 새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반성이요, 우리의 계획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획기적인 작업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과거 역사를 재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양식을 후퇴시키거나 과거를 그저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온 신앙의 증거자인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고 구체적인 한 나라의 역사속에서 기록된 구세사를 배우며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여 신앙의 눈과 마음과 정신이 쇠신되지 않은 한 진정한 자각을 가질 수 없고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우리 자신이 정확되기 위해 회개와 쇄신을 계속하는 교회이어야 함을 통감하면서 금년 목표를 「내적 쇄신의 해」로 설정 하였습니다.

1931년 전주교구가 한국 최초의 방인교구로 설정된 것은 단순히 교세를 크게 확장시켰다고 인정 받아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성장을 결산해 주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1831년 북경교구로부터 독립하여 조선교구로 창설된 100주년을 경축하는 기념사업으로 전주교구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교구 선조들이 소유한 성숙하고 각별한 신앙심의 덕분이었습니다.

전주교구가 설정되기까지 이 교장 교회의 구성과 분포의 특색은 순교자와 순교자의 후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거듭될 수록 이 교장의 산천 구석 구석은 전국 각처에서 물려온 신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우촌이라는 새로운 촌락 공동체를 이 땅에 남겨 놓았고 지금도 그 분위기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교장은 한국적 출애굽이 낳은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보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처를 찾은 것이며, 그들에게는 오로지 신앙만이 결약의 계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사도 2, 44-47)고 한 복음적 공동생활을 생생하게 구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선조들의 신앙기초는 화려한 의식이나 심오한 신학적 교리체계보다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생활을 조명하는 복음의 생활화에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토착화된 말씀으로 생생하게 전하였습니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이 교장 교회에 사제가 상주하기까지 다른 지방에 비해 장구한 세월동안 목자가 없는 중에도 꾸준한 교세의 증가가 있었던 것은 많은 수의 출중한 평신도 봉사자들을 가졌던 덕분이었습니다.

이 교장에 교회가 설립되면서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는 혼연일체가 되어 제도로서보다는 형제애로서 서로 만났고 의무감보다는 복음적인 기쁨과 자발적인 노력에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특히 복음정신에 투철한 사제와 수도자의 사심없는 생활과 자부적(慈父的)인 모습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한 가닥의 햇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심은 사회참여 역시 타산적이고 사업적이기보다는 인간회복을 위한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구설정 50주년을 앞두고 한국 교회의 선구적 교구로서의 긍지를 보존해 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감을 더욱 절감합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면서 더욱 복음적이고 더욱 순수한 모습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새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선교자세를 모색하는 준비작업에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하겠

(2) 숲 정 이

(1면에서 계속)

읍니다.

이러한 기초작업은 책상 위의 연구나 행정위주의 계획이 아니라 현안 과제를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신자들의 충의를 모음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작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교구 및 본당 차원의 모든 협의회, 위원회, 단체 등, 사목과 교육을 위한 여러 기구들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사명의 성취는 가톨릭 교회의 본래적 정신으로 돌아가 편협한 자기본당 이익 위주의 신앙자세를 지양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제와 수도자들의 자질향상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까. 연례적인 피정이나 세미나 외에도 자발적인 영성그룹과 연구모임을 통해서 보다 원숙한 복음적 목자상(像)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주교구사의 특색 중 하나인 적극적인 평신도 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신도의 위치가 더욱 강조되고 적극적인 육성과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반성과 각오는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 하신 복음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은 하느님의 뜻을 철저히 수행할 자세를 표현하는 내적 책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교구 내 모든 하느님 백성 여러분,

우리의 각오가 아무리 배산갈고 의욕이 아무리 장엄하고 우리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필립 4, 13-14)고 한 확고한 믿음만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해 줄 것입니다.

1980년 1월 1일

◇ 謹 賀 新 年 ◇

기쁘고 보람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교 전주교구청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숲정이 편집실
가톨릭 센터

희 소 식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질면조가 가축, 부업, 화초식품용으로써 대량 생산되어 획기적인 선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의 연락 바랍니다.

특 징

노천사육이 가능하며 질병이 없으며 닭에 비해 성장율이 빠르며 초식동물로써 사료비가 40% 절감할 수 있음.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내정부락

질면조 사육장 요 셉



새 바람은 부는가?

70년대의 묵은 역사가 닫히고, 80년대의 새역사가 열리고 있다. 크게는, 국가발전과 안보를 위해 그렇지도 절실히 요청된다면(10월유신)까지도 만7년만에 막을 내린 79년이었다. 이제 새역사를 시작하며 우리는 묵은 허물들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악몽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하도 놀랄만한 엄청난 사건들만 터져, 감히 내일을 껴치지 못하게 하는 오늘이지만, 흐름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그 하나로 정풍(整風)운동의 겉새를 들 수 있다. 좋다 제발 정치인들부터 새로워져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알팍한 술수는 접어치우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정치인은 분명히 사업가가 아니다. 그들이 선거유세 때마다 스스로 말하듯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민들의 머슴이다. 그런데도 무슨 사건이나 하나 터지면 얼마를 치부했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어떻게 그리도 큰 돈을 모아서 육영(育英)재단을 만드는가? 그런 돈으로 인재를 길러내어 참신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먹었다는 말은 또 무슨 소린가? 그 돈은 도대체 누구의 돈인가? 결국 깨지는 것은 복장고 뿐이란 말인가?

좋다. 지금이라도 좋다. 제발 정치인들의 주인인, 아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아끼고 섬길 줄 아는 정치인이 좀 나서라. 기왕에 정치인으로 봉사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들랑, 지금까지의 잘못을 진심으로 속죄하고, 새마음으로 한번 나서라.

새바람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없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가로막는 자를 쫓아야 한다. 그래야 묵은것을 보내고 새날을 맞을 수 있다(送舊迎新).

숲 정 이 산책



「잘가, 수고했어!」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강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0921

범 떠도(덕배)·이 마리아

敎區 平協, 1월 1일에 제5차 정기총회

—임원개선 갖고,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정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회장 曹成浩)의 제5차 정기총회가 80년 1월 1일 신년 교례회에 이어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열린다.

총회는 지난 12월 9일에 열린 예정이었으나, 각본당 사도회의 임원개선이 끝나지 못해 신년교례회 날로 연기되었다. 각본당과 교구단위 액션단체의 새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총회에서는, 교구평협을 이끌어 갈 새 임원선출과 80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8백6십5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구평협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보강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이 다루어진다. 본당 사도회와 마찬가지로 선교·전례·재경·봉사의 부서와 교육·조직·부녀의 7개 부서로 임원진을 구성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송부된 회의자료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그리고, 교구평협이 크게 벽에 부딪친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록주」 판매문제에도 각 본당의 적극적이고도 뜨거운 협조가 요망된다.

1,2월은 지도자 교육의 달

—교육으로 다져진 지도자상 정립

새해를 맞아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짧은 피정이 여러 차례 열린다. 모두들 생업에 바쁘겠지만, 또한 지도자의 역할을 기르고 영신을 살찌우는 피정 교육에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정해진 날짜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80년대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평신도 사도가 되자.

- 교구청 직원 피정...1월 2~3일 성심·해성 신자 교직원 피정...1월 5~6일
- 공소 지도자 피정... 1차(1월 8~9일)...1·2지구(고창·김제·부안·수류·신태인·월평·정읍·대야·문율동·오룡동·월명동·팔마)),
- 2차(1월 28~29일)...3·4·7지구(고산·삼례·주현동·창인동·노송동·덕진·복자·서학동·숲정이·전동·중앙·파티마·여산·용안·합열·화산·황동)),
- 3차(2월 1~2일)...5·6지구(남원·상관·순창·임실·금산·무주·장계·장수·진안·한들))
- 본당 사무장, 재산관리위원 교육...1월 10~12일
- 본당 사도회 임원...회장단(1월 24~25일), 임원 1차(1월31~2월1일), 임원 2차(2월 22~23일)
- 교구 평협 산하단체 임원...2월 11~12일 본당 부녀 지도자...2월 28~29일
- 푸르실로...여성 7차(1월 14~17일), 남성 13차(1월 19~22일)

서 품 식 안 내

오랜 수련과 연학 끝에 벅찬 성직에 오르게 되는 새 서품자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성원 베풀어 주시고, 당일 모두참석하시어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일시: 80년 1월 11일(금) 오전11시 ② 장소: 전주 중앙성당 ③ 주례: 김재덕 주교
- ④ 서품자 명단

사제품: 김희남(베드로)...출신본당(중앙)
 부제품: 서광석(요셉)...출신본당(중앙), 박인호(베드로)...출신본당(해방촌·서울), 유영도(베네딕도)...출신본당(중앙)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송옥의 상실
 최 춘 자(로사리오)
 (이 시 계 점 열)
 전화 ⑥ 6 2 1 9

개업안내
 테이프·레코드·카세트·DP & E

숲 정 이 음 악 사

홍지서림 남쪽 편
 전 대 수(베드로)

결 (축) 혼

한순범 여사3남 경양수(프란치스코)
 이상택 씨 장녀 이미경(요안나)양
 일시: 1979년 12월 30일 12시
 장소: 전주 전동 천주교회
 주례: 서용복 신부님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 종 당 한 약 방

김 남 수(벨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9
 (은행나무 사거리)
 전 화 ③ 2 2 7 7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발석, 보로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타올, 보자기, 족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 월 타 올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⑥ 2849·⑥ 5612
 엄 판 섭(베드로)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 보 당 금 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③ 8 1 8 8 (자 ⑥0369)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이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신년교례회...80년 1월 1일 오전 11시, 가톨릭센터에서
2. 성실·해설 교직원 피정...1월 5~6일
3. 새책서포식...1월 11일 오전 11시, 중앙성당에서
4. 풍소 지도자 피정...참가 대상 본당-1,2지구

※ 교창, 집세, 부안, 수류, 신태인, 월평, 정읍, 대야, 문운동, 오룡동, 월명동, 팔마
 숭정이를 위한 좋은 의견, 많이 보내 주세요...알고 싶은 교리나 교회상식 질문도 받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묵주성금...주현동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 1만원, 보광 출판사 2만원, 중앙 익명 5천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양수태
 사도 회장 정태병

1. 사도회 임원선출: 회장-김병구, 부회장-김정생·조정례, 선교-김순성, 재정-김을태, 전례-임주택, 봉사-한문권, 감사-오중원·김영춘
 ※ 구 임원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코리아 연합전목회: 3일<목> 오전 10시
 3. 성심부녀회: 4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서품 공시: 김희남(신품), 서광석(부제품), 유영도(부제품)
 서품 장에여부를 주임 신부께 알려주세요(31일까지)
 5. 가톨릭 카렌다: 매일 축일표 구입하세요(사무실)
 6. 영세사진 찾아가세요(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346,262원

6. 79년 송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사도회 임원, 반회장, 신심단체장)
 7. 80년도 사도회 임원
 사도회장: 조성호, 부회장: 양규철, 선교: 유기순, 차장-이충원, 전례: 유덕열, 차장-이기배·안경태, 봉사: 장동주, 차장-강기연·허순덕, 재정: 박상기, 차장-노선경, 감사: 김성원, 임종을
 8. 봉헌금 미수 정리: 오늘로써 79년도가 마감됩니다. 미수봉헌금이 없도록 정리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713,71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한형수

1. 축! 새해
 2. 애령주일: 금년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특별 위령 미사 및 위령기도-10시미사
 3. 성탄 불우돕기 성금전달: 10시미사 후
 4. 보미사및 교리교사 수고 위로선을 전달: 10시미사후
 5. 미사시간 변경: 주일 아침6시→6시30분으로
- 지난주 봉헌금: 86,285원 성탄 특별헌금: 240,505원

(노충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궁열
 사도 회장 박춘근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저녁미사 후
 2. 애령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헬레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1월 4일, 어머니미사 후
 5. 특별헌금 회사: 박인식(아오스님)씨 10만원, 양민식(바오로)씨 3만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신년도 교무금을 신입받고 있습니다
 본당신부님의 뜻에 따라 교무금을 신입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신년도 교무금 신입을 못하신 분들은 속히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7. 31일날 자정미사: 31일 밤 12시 송년미사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성탄 축일헌금: 270,045원 애금헌금: 187,130원
 합계: 457,175원

(숭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신년교례식: 1월 1일(많은 참석 바람)
 2. 주일학교 후원회: 1월 4일 오후 1시
 3. 부녀회 월례회: 1월 5일
 4. 사도회 월례회: 1월 6일
 5. 청년회 소식: 매월 1일, 15일 7시 회합 미혼남·여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성탄절 1일다방에 협조해주신 교형지매님께 감사
 6. 원아 모집공고: 숭정이 유치원 1월7~12일까지 원아모집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
 7. 신축기금 내주신 분: 이기호(20만원), 김창영(10만원), 정공순·이부남(각 5만원), 김기순(2만원), 노점배(2천원), 이정순·박귀식(각 5천원), 송정원(5만원), 청년회(3만원)
- 지난주 봉헌금: 274,390원 성탄절헌금: 119,36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중복
 사도 회장 유제상

1. 미수된 봉헌금 금주에 완납합시다
 2. 79년 송년미사: 31일 오후 7시
 많은 참석을 바라며 한해를 뒤돌아 반성합시다
 ※ 성사를 못보신분 참석하세요
 3. 본당내 젊은이 모임: 25세~39세까지
 무관심했던 교회생활과 젊은이로써의 가치관 구성에 모두 참여하세요
 4. 본당 교리교사 목사회협 위로여행: 대천
 5. 성탄 준비에 수고하신 분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45,980원 성탄감사헌금: 330,22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열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홍

1. 불우 이웃돕기: 성미-3가마, 성금-105,000원
 지출내력
 교도소-백미 1가마, 현금-43,500원
 은퇴신부-47,000원
 본당 불우협회-12제대에 백미 1차, 라면-1상자
 2. 판공성사 못보신분은 신자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느님께 약속하신 교무금을 완납해 주시기바랍니다
 4. 신년미사: 1월 1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성탄 감사헌금: 884,875원
- 지난주 봉헌금: 357,59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대학사회 창립: 오늘 저녁미사 후 (대학생 전원 참석 바람)
3. 주일학교 동계 특별교리: 1월 7일~12일 오전 10시~12시
4. 학생회 정기총회: 1월 6일 9시미사 후 (회장 및 임원선출)
5. 가을판공 시험문제 답안지를 1월6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임원들 오늘 오후5시30분까지 전원 참석바람
 2. 부녀회: 공식미사 후
 3. 축! 결혼: 오늘 11시30분
 신랑-노종관(야오버), 신부-정영숙
- 지난주 봉헌금: 89,445원 성탄봉헌금: 191,976원
 교무금: 586,600원

강생의 신비와 영원한 생명

전주교구장 김 재 덕 주교

친애하는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림 4주간 동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마르코 1:3)는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따라 기도와 희생, 그리고 선행, 특히 판공성사를 통하여 열심히 준비하여 온 **성탄절**을 오늘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불행했던 실락원사건(失樂園事件) 즉,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몽매에도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늘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간택하시어 오늘 탄생하신 이 아기야 발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실 위대한 분이시며, 영원과 시간을 이어주실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독생성자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면서 시간안에 태어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소유의 원천이시면서 이름없는 한 여인의 아들로 그나마도 외양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강생의 신비**(降生神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오!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심오함이어!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으며 주님의 의는 상대가 될만한 사람이 그 누구였습니까?”(로마 11:33~34) 하고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바로 보기만 해도 죽기 마련이던 구약의 두려움의 하느님을 이제 우리는 구유앞에서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공하옵게도 하느님을 인간속에서, 창조주를 피조물 안에서 뵈옵게 되었고, 천국을 지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실로 오묘합니다.

오늘 구유에 나신 이 아기는 하늘에서는 어머니 없이 나시고,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나신 **신인**(神人)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중보자**(中保者)가 필요했으며,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신인(神人)이신 **구세주**(救世主)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느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도 「노여움에서 벌을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시고, 노여움보다는 사랑을, 벌 보다는 용서를, 두려움 보다는 자비를 보이시는 하느님으로 오셨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부정과 불의, 그리고 부조리 등으로 소용돌이치는 암흑의 세상이어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허탈과 공포속에서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또 비록 오늘의 세상이 윤리기준과 올바른 가치관을 망각한 채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에 실망하여 불안과 공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 이유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탄생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인간역사 안에는 인간운명(人間運命) 이상의 초월적인 구원의 경륜(救援經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암흑속에서 멀고 있던 우리 인류에게도 이제 암흑은 사라지고 정의의 태양이 높이 솟았

으며 절망은 가지고 희망이 새로이 왔습니다.

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제 좀 더 그리스도 강생의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선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유에 나신 아기에수는 역설적(逆說的)이지만 죽음을 죽으려고 세상에 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우리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양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위한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생명의 죽음이었으며,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희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강생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만, 그 죽음 자체가 본 목적은 아니었고, 「**죽음을 통한 영원한 삶**」이 궁극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강생의 목적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었을지라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요한 11:25)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탄생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맞갖은 희생적인 삶이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도 영화로이 부활하시기에 앞서, 먼저 비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33년동안 착실하게 인간생활을 친히 사셨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행하신 길을 우리 또한 착실하게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쉽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꼭 같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삶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길**을 친히 걸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으신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人生)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예수님은 죄 이외에는 모든점에 있어서 우리와 꼭 같으신 분”(히브리 4:15, 2:17)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제 1979년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금년은 몹서리치는 악몽(惡夢)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한 보람찬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묵은 해를 반성하고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보다 더 알차고 복된 해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설계와 계획을 꾸며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우리 교구의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해**로서 더욱 바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설계도 좋고, 치밀한 계획과 활발한 추진도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길이** 아니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그리스도다운 길**, 그것이 아니라면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이지만, 결국은 죽어 그것으로 끝장을 보고 마는, 그것이 고작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면 일생을 두고 수고한 보람치고는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충실히 따릅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강생의 신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로운 성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의 기쁜 인사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